

실내거리 2m 이상에서도 비밀 감염 가능

전북대병원 이주형 교수, 대한의학회 최신희 논문서 주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예방의학과 이주형 교수팀이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 공간에서는 6.5m의 거리에서도 코로나19 비밀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으로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했으며 2m 이상 떨어진 실내공간에

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 감염된 사실을 '코로나19의 장거리비말전파 근거(Evidence of Long-Distance Droplet Transmission of SARS-CoV-2 by Direct Air Flow in a Restaurant in Korea)' 연구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논문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희(35권 46호)에 게재됐다.

조사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씨는 지난 6월 16일 최초 증상을 나타냈고 17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A가 같은 달 2일과 15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는 해외나 전주시 이외의 국내 지역 여행 이력이 없었고 전주시

에서는 직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A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는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순간뿐이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B가 A의 감염원이었는지로 추정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A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식당을 방문했고 B일행은 오후 5시 15분에 들어왔다. A일행은 B일행으로부터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 있었고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에 식당에서 나왔다.

B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13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B일행으로부터 4.8m 떨어진 채로 식당에 21분 머문 C도 6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A와 C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으며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공기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A와 C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거리는 멀었지만 공기흐름 경로 상 마주보고

있었던 A와 C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공기흐름을 고려한 좌석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주형 교수는 "조사결과 B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를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학조사시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의 밀접 접촉자에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특히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배치와 냉난방기의 위치나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겨울, 외화모음 이벤트 '1+1=훈 훈~' 이달부터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가입시 추첨 통해 경품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연말을 맞아 외화는 모으고 마음은 나누는 2020 겨울, 외화모음 이벤트 '1+1=훈 훈~'을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환전 또는 외화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파파라마켓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경품 금액만큼 기부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한다.

또한 SNS 행복 메시지 챌린지를 실시해 12월에는 '영원의 메시지'를, 1월에는 '따뜻한 새해 희망'을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작성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농협은행의 캐릭터 사은품인 '울리 안대·목베개 쿠션'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에는 최대 90% 우대환율로 원할 때 외화를 사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환전 상품인 '내맘대로 외화BOX'와 원·외화 동시 가입 시 교차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NH주거래우대 외화적립예금', 목돈 예치가 가능한 '외화정기예금' 등 외화 모음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와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반부패 성과 국제사회와 공유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 '국제반부패회의' 참여

세계 3대 연금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이룩한 반부패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해나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일부터 4일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http://19thiacc.pathtable.co/)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제반부패회의는 1983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민·관 합동 포럼으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주제로 열리며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공단은 이번 회의 중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오는 17일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워크숍 주제는 사전에 전 세계 공모를 통해 70여 개가 선정됐으며, 각 워크숍 제안자가 주제, 연사, 방식 등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한국의 시안단체?학계는 물론 전 세계 기관이 참여하며, 공단은 한국의 9개 기

관 중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워크숍을 단독으로 주관한다.

이번 워크숍의 연사는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맡았으며,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이은경 UN 글로벌 콤팩트 책임연구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그간의 '반부패'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반부패·청렴 관련 브로셔, 동영상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부스(www.iacc2020.kr)도 운영한다. 온라인 홍보부스는 각 기관의 활동 중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반부패 정책·시스템을 소개·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12개 외국기관, 8개 한국기관 등 20개의 국내외 반부패 선도기관이 운영한다. 홍보부스의 콘텐츠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반부패?청렴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세계 3대 연금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이 ESG 투자 등 책임투자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난달 30일, 신협중앙회와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직원·조합원 대상 다채로운 교육혜택 지원

신협, 한국복지사이버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1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총장 최원석)와 신협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협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협의 및 신협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배우자, 자녀 포함)이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에 입학할 시 수업료 50% 감면 등 장학혜택 부여 ▲졸업 후 전문 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 제공 등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안용환 신협중앙회 연수원장은 "이번 산학협력이 신협 임직원들에게는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는 학업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평생교육을 통한 신협 활

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2015년부터 서울 사이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신협 직원의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30%감면, 신협 임원 및 조합원의 경우 일반학기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밭대, 국민대, 조선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산학협약을 맺고 1만 8천여 신협 임직원들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지난달 10일 실시한 '전국 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판매역량강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경제사업 대상' 수상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이 지난 11월 10일 실시한 '전국 축협 경제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판매역량강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코로나19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따르자 '고기양을 20% UP하고, 가격은 1,000원 DOWN'하는 포장판매를 실시하고 언택트(비대면)시대에 따른 참여우 도시락을 런칭하고 판매했으며 드라이브 스루판매와 배달판매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지역고객과 함께 하고자 저가메뉴인 '참예우 실속세트'와 '한우탕' 등을 신설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노력을 인정받

아 이번 평가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은 시기임에도 많이 찾아주시는 조합원님과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책임경영자이론 공모제도'를 신설하고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지점장 선정해 해당 부서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인사시스템을 시범 실시했고, 이러한 결과 책임경영자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계 셋거라'

농어촌공 전북본부

전북도내 3423ha

2813명 대상 전수조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연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와 축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매도는 연간 330/㎡원, 임대는 연간 250/㎡원을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사업이다.

조사대상은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이며, 전북은 3,423ha, 2,813명에 이른다. 전북본부는 그동안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물론 약정자와 수급자 일치여부 조사하고, 2차로 농한기에 직원들의 현지 조사 및 주변인 탐문을 통해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전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변에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

급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해당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공사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에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행중으로,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의 영농은퇴 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관리중인 경영이양시스템이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돼,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본인선택원 3회차 최종 접수

전북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최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해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입수화능력 시험일 연기 등 정부정책을 반영해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12월에 3회차를 접수한다. 1회차는 지난 7월에, 2회차는 9월에 시행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